



전 가 동 향

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한전, 인버터 설치 쉬워질 듯

지원용량 5.5kW이상 확대 검토

앞으로 7.5kW 이하의 전동기에 고효율 인버터를 설치해도 관련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최대수요를 억제하고 전기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인버터의 설치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전은 7.5-55kW 용량의 전동기에 고효율 인버터를 설치, 실제 절감할 수 있는 전력합계가 25kW 이상인 수용가에 대해 1kW당 19만8000원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용량범위를 완화, 보다 많은 수용가가 인버터를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전동기 지원용량을 당초 7.5-55kW에서 5.5kW 이상으로 확대시킬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절감 가능한 전력합계도 25kW에서 최소 10kW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한전은 이같은 내용을 산업자원부와 협의, 빠르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인버터란 기계설비를 구동시키는 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전압과 주파수를 손쉽게 바꿔 에너지소모량과 직결되는 전동기의 회전속도를 필요한 만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다. 따라서 전동기의 회전속도와 전력사용량이 비례하는 펌프, 압축기 등에 인버터를 사용할 경우 30%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전기안전공사, 해외인증 획득 지원

총 73개 제품·시스템 대상, 소요비용 최고 700만원내서 보조키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김영대)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고 700만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원한다.

지원되는 분야는 CE, UL, FDA, VDE, CSA 등 68개 제품인증 분야와 QS-9000, TL9000, AS9000, ISO14000 등 5개 시스템 분야로 총 73개다.

구비서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신청서, 사업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등이며 소기업,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이다.

전기안전공사 이종호 인증기획담당 과장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세계로부터 인정받아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01년 4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전기안전성시험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같은해 11월에는 독일기술검사협회와 수출제품에 대한 안정인증지정시험기관협정 체결식을 개최해 공인시험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를 굳혔다.

한전, 배전부문 해외진출 ‘시동’

태스크포스 가동 ... 중국·인도시장 공략

한전이 배전 부문의 기술상품을 개발, 해외사업에 적극 진출하기로 했다.

한전은 올해부터 배전 분야 해외사업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손실·정전감소, 배전자동화 기술 등 선진국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는 핵심기술을 상품화해 동남아, 중국, 인도 등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발전 부문에 치중된 해외사업을 송변전은 물론 배전·판매 부문까지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배전 부문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9월 한국국제협력단체(KOICA)의 필리핀 5개 지역 배전회사에 대한 ‘배전계통 운영 및 고객서비스 기준 개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주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전은 또 인도 배전회사 요청에 따라 올 2월 중 뉴델리 지역의 배전설비 현대화와 봄바이 지역의 배전자동화 사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고 상반기 중에 관련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외에도 중국의 배전자동화 사업, 필리핀 농어촌 전화사업, 베트남 배전기술인력 연수사업 등 동남아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른 단계별 요구에 맞춰 최적의 배전기술 상품을 패키지화해 해외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 해외사업 개발역량 강화

전문가 양성·정보센터 구축, 사업 분야 진출영역 다변화

한전은 올 한 해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 전시적인 지원체제를 수립,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를 위해 해외사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문서를 DB화하는 등 사업정보 수집 채널을 강화하고 정보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사업개발조직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해외사업 개발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품화하고 그동안 발전 분야에 치중돼 있던 해외사업 분야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력 선진국의 틈새시장을 노려 해외사업 진출영역을 다변화하고 필리핀 현지법인을 장기적으로 해외사업 동남아본부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전은 현재 진행 중인 필리핀 일리한 복합화력발전소와 말라야 화력발전소 운영사업에서 각각 1446만 달러와 1813만 달러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리한 복합화력은 오는 2022년까지, 말라야 화력발전소는 오는 2010년까지 한전이 운영하게 된다.

한전은 지난 10일 중국 뤄양에 61만kW급 화력발전소를 건설키로 중국 성성전력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미국 괌 유류화력발전소 인수 및 운영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사우디 열병합발전소, 싱가포르 복합화력발전소, 인도 배전사업 등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분야로 사업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얀마 송전전압 격상 기본설계 용역사업, 우크라이나 화력발전소 재가동 타당성 조사사업, 캄보디아 송전망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 등 한국국제협력기구(KOICA) 등과의 대외협력을 통해서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해외사업을 통해 총 140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특히 올해 해외사업을 전담해 추진하는 법인을 설립, 새로운 수익기반을 창출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어 향후 해외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lectricity